



아리랑퍼스에서 맞는 일출 모든 어둠을 뚫고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저 일출처럼 계사년 한 해가 희망으로 떠오르기를 고대해 본다. 사진은 27일 오전 7시 35분 자연과학대학 2호관 옥상에서 바라본 일출.

김명지 기자

새해 아침에

거세개탁(擧世皆濁). 이는 '은 세상이 모두 탁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바르지 않아 홀로 깨끗이 힘들다'는 뜻이다.

교수신문은 지난달 23일자 전국 대학 교수 626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율해의 사자성어를 '거세개탁'으로 선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자성어는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지식인과 교수들이 권력에 불어 정치참여를 빌미로 한 당파적 언행을 일삼는 실태 △현 정권의 공공성 붕괴와 공직사회의 부패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로 인한 세대갈등과 계층갈등 심화 등의 이유로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한다.

가슴이 답답한 이들은 이들뿐이었

겠는가. 오로지 사회문제만 우리들을 힘들게 했겠는가. 필자도 그랬고 당신도 절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머리 아픈 고민들로 지난날 당신도 여러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당신만 힘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심약해지듯 외로움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한다. 잘 사는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도, 같이 있는 사람도, 혼자 있는 사람도 모두 외롭다고 한다.

그러나 좌절할 수는 없다. 이 탁한 세상에 어느 곳으로 가야할지 혼란스럽지만 우리 곁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박노해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희망찬 사람은/그 자신이 희망이다//길을 찾은 사람은/그 자신이 새 길이다//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사람 속에 들어있다/사람에서 시작된다'

당신에게 희망인 가족과 지인들과 술 한 잔 기울여보자. 아름다운 건배사로 그들을 위로하며 행복을 빌어주자. 필자도 마음으로는나마 작년 한해 남모르게 고군분투했을 당신에게 건배를 청한다.

너·나·잘·해(너와 나의 잘나가는 새해를 위하여!) 김명지 편집국장

신년 축시

눈부신 새 날을 위하여

김수열

무너진 꿈이어도 좋다
그리던 희망이어도 괜찮다
폐허가 된 한반도면 어쩔고
새살 돋는 조국이면 또 어떠랴
아침에 한 술 뜨다 비로소 올었다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다
마침내 눈시울을 붉혔다는 사람이 있다

내일이 있다는 건
오늘을 견뎌야 한다는 것
미래가 있다는 건
현재를 보듬어야 한다는 것
망각은 죽음이라는 것
은몸으로 기억하고 다시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젊음이여
김수영 시인의 표현을 빌면
'머리' 만으로가 아니라
'심장' 만으로가 아니라
'온몸' 으로 밀고 가야하는 것
은몸일 때라야 '주장' 이 된다는 것
은몸일 때라야 '자유' 가 된다는 것

어둠을 깨치고
새벽을 맞이하기 위하여
따뜻함이 힘이 되고
부드러움이 혁명이 되는
진리와 정의와 창조의 눈부신 새날을 위하여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 1982년 『실천문학』으로 등단 △ 시집 『어디에 선들 어떠랴』, 『신호등 쓰러진 길 위에서』, 바람의 목례, 『생각을 훑치다』, 산문집 『김수열의 책읽기』, 『셋마파람 부는 날이면』 등 △ 오장환문학상 수상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The World Comes to Jeju, and Jeju Goes to the World

튼튼한 제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13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땀 흘려 일하고 함께 노력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들이 곳곳에서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순유입 인구가 8년 만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은 1천만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1차산업은 조수입 3조원 시대로 올라섰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인증 등 제주브랜드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를 비롯한 읍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일류대학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새해 처음 20%시대를 엽니다.

새해 제주도정의 목표는 '튼튼한 제주'입니다.

민선시대 들어 처음으로 이룩한 '외부차입 없는 건전재정 체제'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차산업·관광·수출제조업 등에 과감한 투자로 튼튼한 제주경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복지재정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하고 따뜻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이 '튼튼한 제주'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늘 도민들과 함께하는 도정을 약속드리며 도민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학 6대 선진화 정책’ 성공적 마무리

총장 신년사

존경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사년(癸巳年)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지난해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 개교 60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제주지역의 애환과 성장을 함께 한 우리대학교가 발전의 번교점에서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해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값등록금 이슈'로 인한 등록금 인하, 각종 지원과 연결된 총장직선제 개선 정책, 성과목표제 체결 등 국가와 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한 내부혁신과 가시적 성과 그리고 고통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거센 도전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여러분들은 오로지 학교발전을 위해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했고 우리 대학교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대학기관 인증평가'에서 전 분야 인증을 받아 향후 5년간 대학 교육의 질에 대한 보정과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선 5년 연속 선정됐으며, 중앙일보 '교육여건 부문' 평가에선 국내 대학 중 5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만 산학협력선도대학 선정 등 13개의 신규 국책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우리대학교의 역량과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23개국 143개 대학, 23개 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 17개국 61개 대학과는 학생교류 협정을 맺음으로서 우리대학교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과 3년전 40여명의 외국대학 파견 교환 학생 수는 240명으로 6배가 늘었고, 우리대학교 재학 외국인 학생 수는 600여명에 이르러 일전명 외국인 유학생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도 잇따랐습니다. 통신이 불가능한 밀폐구역에서도 선체 구조물을 이용해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이 우리대학 교수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증명되는 등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연구결과가 적지 않았습니

다.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성과도 그 어느 해보다 풍성했습니다. 제1회 변호사 시험에선 합격률이 94%에 이르러 전국 로스쿨 중 8위, 거점 국립대에선 1위를 기록하는 놀라운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의 2년 연속 배출 등 사법, 외무, 행정 3대 국가 고시에서 2009년부터 4년 간 매년 합격시킴으로써 다른 지방대학의 부러움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형성케 했습니다.

지난해 이 같은 성과는 우리 대학을 사랑하고 노력해주시 대학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묵묵히 연구실과 강의실에서 열정을 보여준 교수님과 소임을 다해 주신 직원 선생님, 학업에 열정을 바친 학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취업과 교수 연구실적 등에 있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취업률인 경우 제주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 학생들의 취업 눈높이, 침체된 경제사정 요인 등도 있지만, 우리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뒤돌아 봐야할 것입니다.

진행하는 대학 가족 여러분!

올해 역시 우리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마는 않습니다. 2월에 출범하는 신정부의 대학정책이 불확실하고, 정치권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며, 예측되고 있는 경제불황은 취업문을 더욱 좁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치열해지는 우수 신입생 유치, 지역발전 선도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 대학사회의 혁신과 변화

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은 잠시도 방심을 허락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급격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올해의 대학 운영은 임기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구성원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부체질 혁신, 기초 역량의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취업과 동시에 추진하였던 대학 6대 선진화 정책 실천 로드맵을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국내 20위권 상위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 위상과 역량을 가능하는 주요 핵심지표에 대해 '전년 대비 10% 향상 운동'을 벌이고, 더불어 핵심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둘째, 구성원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과장, 교수회, 직장협의회, 학생회 등 대학구성주체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통해 대학운영의 Governance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체질 개선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연구와 학생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불합리적인 규정들을 재검토하며, 성과에 있는 곳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융복합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편제에 대한 연구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술연구진흥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10% 늘리고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 유치 확대를 통해 학술연구비 수주를 500억원 규모로 늘리겠습니다.

다섯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경력개발 맞춤형 인재육성 사업, 취업 및 창업동아리 운영 활성화 사업 등도 추진하고,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기본소양을 높이기 위한 기초교양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밖에도 장학금을 전년 대비 5% 증액시켜 장학금 수혜율을 국·공립대학 상위 10% 수준으로 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해외파견 교류 수학생 확대와 외국 유학생 유치, 외국대학과의 문화 및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굵직한 시설 사업들도 진행됩니다. 제3도서관과 수의과대학,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가 본격화 되고, 체육관 증개축 사업도 설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2010년 착공된 의학전문대학원 신축공사는 상반기 안에 마무리 되는 등 대학 인프라 구축도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의 추진을 통해 우리대학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 모두가 행복해 하고 제주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행복한 제주대학공동체 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가족여러분!

급변 한해에도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험난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들 간의 무한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대학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상아탑의 권위에 안주하면서 현상 유지에 급급했던 대학경영의 패러다임은 과감히 버려야할 과거의 유산입니다. 대학은 분명 패러다임 전환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학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대학교 가족 모두의 신뢰와 포용, 그리고 창조적 협조가 뒷받침될 때 우리대학의 혁신적 발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제주대학교 가족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허향진 총장

질적 발전 이루기 위한 대학인들의 ‘소통’ 기대

2013년,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교육열”에 관한 한 세계 최강이라는 우리나라는 교육제도만큼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손질을 합니다. 그래서 너 나 없이 우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바뀌는 교육제도는 세대별 세대차를 낳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세대차가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소통’에도 그 문화적 차이를 낳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논란 껌해도 이십전십으로 소통되던 시절이었다고 얘기하며 사회 곳곳에서 오늘날의 불소통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세대차가 청년과 청년이었다면 오늘날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등으로 나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몇 십대 초·중·후반으로 나

누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세대간에도 이해관계의 다양성과 정보의 차이로 소통이라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에도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규모의 양적 팽창은 소통의 어려움을 배가 하고 있습니다. 양적 팽창을 질적 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소통문제의 해결이 급선무입니다.

조직운영의 기본은 구성원의 의견수합입니다. 소통은 의견수합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 간에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공식이 소통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대학 당국은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소통의 장을 마련해도 참여자가 없게 되는 무관심, 그 것은 악의 꽃입니다. 자기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동반 발



송석언
교수회장

전에 호응하지 않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올해 말쯤, 새로운 총장후보자선정 제도에 따라 총장후보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절차의 대강의 내용은 확정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대학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합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 하는 일에 시행착오가 없을 리 없겠지만, 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지를 모으는 소통의

세대간 공감을 열어가며 모교의 이름 드높일 것

희망찬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뱀은 풍요와 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특히 제주에서는 집안을 지켜주고 소망을 이뤄주는 토속신앙으로 추앙되어 왔습니

다. 사랑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제주대학교는 지난 60년 동안 학생 여러분과 동문들의 노력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

다. 올해는 그동안의 값진 성과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더 큰 세계를 무대로 우리

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문들과 학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우리 총동창회에서도 올 한해 동문과 가족, 재학생들간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세대 간 공감을 열어가면 서 모교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젊음의 특권은 끝없는 도전과 가슴 뛰는 열정입니다.

다윗은 철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감한 소년입니다. 돈키호테는 풍자를 향해 돌진하다 무참히 쓰러진 무모함의 상징이지요. 용감함과 무모함의 구별이 쉽지 않습니

다. 하지만 두 영웅들에게는 같은 점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



김대환
총동창회장

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용감함도 무모함도 젊음의 특권입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 는 너무 아깝다”라고 버나드쇼가 말했다지요. 젊음이 가지는 엄청난 에너지와 가치를 정작 젊은이들은 가늠할 수 없다는 말이겠지요. 또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때의 시간을 후회한다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학생살을 보내자

2013년을 맞이하여 학우들과 교직원 여러분에게 행복이 가득한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지난 1년간의 추억들을 다시 되돌아보곤 합니다. 대학생살의 즐거운 추억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던 1년이었습니다. 4년의 짧은 대학생살, 이 시간 동안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학문을 갈고 닦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졸업 후 직면하게 될 사회생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그저 행복하게만 지낼 수는 없는 대학생살이지만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열정을 지님으로써 우리는 멋지고 구체적인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새해를 맞는 기쁨보다는 경제한파, 취업난 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이 대학생들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학우들도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취업에 대한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자신만의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결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헛된 경험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인이 된 스티브잡스의 명언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처럼 학우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고 이루어 낼 수 있는 대학생살



유병선
총학생회장

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학생회의 본질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하는 일입니다. 학우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로서 항상 학우 여러분들의 고충을 듣고 소통하며, 이를 해결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학생회는 이처럼 학우들 스스로 학교의 주인이 되기 위해 도와주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통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바로 양방향성입니다. 한쪽이 한 걸음 다가서도 다른 쪽에서 다가서지 않으면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가 한 걸음씩 다가서는 것이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토론과 논쟁의 차이점은, 전자가 상호 이해 속에서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의견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인 반면에, 후자는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입니다. 토론은 결국 역사사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가 토론입니다. 그리고 보면 대학문화의 특징인 토론은 역사사지의 문화입니다.

2013년, 우리 대학에 역사사지의 소통의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는 아쉬움의 표현일 겁니다.

대학생활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확실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걸어가십시오. 아직 꿈을 찾지 못했다면 용감함과 무모함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신감과 노력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젊음은 결코 가뻔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지 말입니다.

새해 새 아침의 태양을 보며 떠올립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바로 제주의 태양입니다. 희망이고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샘솟는 패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새해에도 동문들과 학생여러분, 제주대 가족 여러분들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학의 민주화와 개혁의 주체로 거듭나겠다

계사년(癸巳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진년(壬辰年) 우리 공직협에서는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가족들과 함께 기성회계직 및 육성회계직(학교회계직) 경력 100퍼센트 인정, 국립대학 6급이하 퇴출제 저지, 공무원직 종가편 관련법안 통과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2013년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이 지속되는 저성장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18대 대통령이 취임하여 임기를 시작하는 첫해로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방향을 가능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사회적 과제를 시작하는 첫 해가 될 전망이며, 이러한 개혁에는 대학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혁에는 거기에 동참해 나가겠지만, 대학 민주화 및 자율성 말살, 대학 상업화를 초래하고 공교육을 후퇴시키는 국립대학 구조개혁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새해가 찾아올 때마다 지난해보다 더 나은 새해를 보내려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여 새로운 한해에 다짐과 계획을 세워 나갑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7기 공직협에서는 대학 6대 선진화 정책 실천 로드맵을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제주대학교가 국내 20위권 상위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

계획의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자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새해에는 계획 없는 사람보다는 다시 다짐을 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더 의미 있게 보이는 모습으로 한해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계사년(癸巳年) 새해 제주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병현
공무원직장협의회장

차기 총장선출 문제 등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사랑이 항상 가득하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대학 발전과 학문연구에 몰두해 오신 허향진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대학은 물론 우리국민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주대학교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총장 직선제의 폐지와 다음 5년을 이끌어 갈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직선제 폐지가 대학의 민주화를 역행하는 일이기도 하기에 그 반대로 만만찮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폐지가 결정된 설문조사는 그 동안의 직선제 총장이 가지는 대학 운영의 한계를 반영하였습니

다. 대학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 또한 다양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오래 전부터 대학가에 퍼들고 있는 특성화 방향이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학이 살아남는 방법일 것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새롭게 마련된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보면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그 동안 물밑에서 썩고 있던 연명층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제도는 물론 대학교육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



안민한
기성회장

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하고자 하는 일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길 바라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사회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대학의 교육제도 등, 젊은 층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제도

와 교육이 기성세대

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변화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이기에, 대학이 어머니이기에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체계가 대학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제주대학교는 개교 60주년 기념행사를 맞이하여 새로운 장기마스터플랜이 수립했습니다. 이는 제주대학교를 명품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총장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지만 총장이 바뀌면 플랜 또한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정부 하에서 새롭게 구성된 차기 제주대학교 총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주대학교의 미래를 희망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와 함께 제주대학교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기를 희망하며 올해도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라캠 도서관 책도 반나절이면 내 손에…”

중앙도서관-교육대학 분관 상호대차 시행

“사라캠퍼스 도서관에 있는 책도 반나절이면 내 손에 도착한다.” 중앙도서관(관장 한석지)이 지난 12월 1일부터 아라캠퍼스 중앙도서관과 사라캠퍼스 교육대학 분관 어디에서나 주문 반나절 만에 도서 및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각각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야 도서 및 자료를 볼 수 있었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우리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교육대학분관이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문한 책을 보다 신속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도서관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중앙도서관과 교육대학 분관간의 자료 상호대차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교직원과 재학생, 대학원생 등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lib.jejunu.ac.kr)에 로그

인해 이용할 수 있다. 단 특별열람증 발급자, 장기연체경력이 있는 자, 상호대차신청을 하고 3회 이상 책을 수령하지 않은 자 등은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도서관 규정상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와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북쪽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책만 신청 가능하다. 자료 소장기관의 담당자 상호대차 접수업무 처리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이다. 낮 12시 이전에 신청한 자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당

일 3시 이후 수령 가능하다. 또한 낮 12시 이후에 신청한 자료는 다음날(업무일 기준) 3시 이후 수령 가능하다. 상호대차 신청자료가 도착하면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자에게 알려주며, 신청자는 대출증(신분증 또는 학생증)을 지참해 본인 소속 도서관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754-2217, 2221) 또는 교육대학 분관(754-4772)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명지 기자

공성용 KCTV회장, 발전기금 3천만원 쾌척

공성용(KCTV제주방송) 회장이 지난달 6일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쾌척했다. 김귀진(KCTV) 대표이사는 이날 허향진 총장을 방문해 인재양성관련 기금, 언론홍보학과, 통신공학전공으로 총 3000만원을 전달했다. 공성용 회장은 지난 2002년 일어일문학과에 2000만원의 발전기금을 낸 것을 시작으로 2006년, 2007년에는 우수교수지원금으로 각각 3000만원, 2008년에는 통신공학전공, 언론홍보학과, 대학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2010년에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지금까지 1억7천만원 기부
다양한 나눔사업에 앞장

언론홍보학과 등에 3000만원을 쾌척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억7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한편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공성용 회장은 37년전 제주에 정착해 20년전 방송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발전기금 기부부터, 다문화가정을 위한 후원 사업까지 다양한 나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달 6일 김귀진 KCTV 대표이사가 허향진 총장에게 발전기금 액서스를 전달했다.

제32회 백록학술상 김혜림 학생팀 당선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이 주최한 제32회 백록학술상에서 김혜림(일반사회교육전공) 학생팀이 '농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대응양상'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당선작(상금 50만원)에 뽑혔다. ▶ 5·6·7면 참고 가작(상금 30만원)에는 오유진(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학생팀이 '전통문화축제의 지역문화관광자원화가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선정됐다. 심사는 김동윤(언론미디어센터 주간) 교수, 진관훈(제주테크노파크) 경영기획부장, 오창현(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장이 맡았다.

법정대학 발자취 발간 학생활동·대학현황 기록해

법정대학(현 사회과학대학)의 역사를 담은 '법정대학 24년의 발자취'가 발간됐다. 출판기념회(출판위원장 고영철 전 학장)는 지난 11월 26일 오전 허향진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보직 교수와 사회과학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직원·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법정대학 24년의 발자취'는 법정대학이 걸어온 길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대학 현황을 비롯해 각종 학사행정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담았다.

2013년 시무식 2일 아라뮤즈홀서 거행

각종 포상 수여

2013년 계사년 시무식이 오는 2일에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공무원 윤리현장 낭독 △정부포상 전수 및 자체 포상 수여 △신년사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은 시무식 표창장 명단. ▲대학을 빛낸 우수교수상 △조정원(컴퓨터교육과) 교수 ▲2012학년도 연구업적 우수교수 △최현(사회학과) 교수 △황경수(행정학과) 교수 △김민철(경영정보학과) 교수 △오홍식(과학교육과) 교수 △고성보(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전유진(해양의생명과학부) 교수 △이남호(화학과) 교수 △김세제(생물학과) 교수 △최경현(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김상재(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홍승호(초등교육과) 교수 △신태균(수의학과) 교수 △현진원(의학과) 교수 △강희경(의학과) 교수 △고영상(의학과) 교수 △양석완(법학과) 교수 △박은옥(간호학과) 교수 ▲연구비수주 우수교수 △대상 -허종철(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우수상-양진건(교육학과)·

전유진(해양의생명과학부) 교수 ▲강의평가 우수교원 △조홍선(중어중문학과) 교수 △강경희(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운정(관광경영학과) 교수 △박진원(수학교육과) 교수 △고성보(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김진근(환경공학과) 교수 △강창희(화학) 교수 △임준환(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김호찬(전기공학과) 교수 △신애경(초등교육과) 교수 △지영은(수리학과) 교수 △조옥희(간호학과) 교수 △양명환(체육학부) 교수 △고호성(법학과) 교수 ▲시간강사 △박진항(일어일문학과) △이은정(생활환경복지학부) △김진현(체육학과) ▲정부포상 △생활환경정책제안(대통령표창)-김경일(해양과학대학) △모범공무원(국무총리표창)-서영진(교무과)·강운희(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대학정보화 유공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강경호(정보통신원) △대학원 학사관리 유공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김미정(대학원) △정보보호 유공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양민혁(정보통

신원) △대학재원 다변화 유공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강태영(총무과) △조달이용 우수직원(조달청장)-표성철(재정과) △명품대학 우수직원 대상(제주대학교총장표창)-고원복(기획평가과)·최진호(국제교류본부)·하경태(총무과) ▲우수학과 △총합평가 최우수-경영정보학과·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 △총합평가 우수-경제학과·에너지공학과 △취업/국제화부문 최우수-일어일문학과·수의학과 △취업/국제화부문 우수-행정학과·해양산업경쟁학과 △연구부문 최우수-초등교육과·해양의생명과학부 수산생명의학전공 △연구부문 우수-산업응용경제학과·해양의생명과학부 해양생명과학전공 △전국대학 비교평가 최우수-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전국대학 비교평가 우수-기계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전국대학 비교평가 장려-원예환경전공 △외부평가(중앙일보평가) 최우수-전산통계학과 △외부평가(중앙일보평가) 우수-수학과 △외부평가(중앙일보평가) 장려-생명화학공학과

김현돈 교수 향년 60세로 작고… 지난달 16일 영결식

김현돈(철학과) 교수가 지병으로 투병하다 지난달 14일 오전 8시 40분 향년 60세로 작고했다. 고(故) 김현돈 교수의 영결식은 지난 16일 오전 9시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유



족과 교직원, 학생 및 각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영결식은 임동춘 인문대학장의 약력보고, 허향진 총장, 윤용택 교수, 이현진 학생의 추도사 낭독, 김수열 시인의 추도사 낭송,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고인의 유해는 제주양지공원에 안장됐다. 김 교수는 1991년 부산대에서 철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2년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철학과 학과장과 신문방송사(현 언론미디어센터) 주관을 맡은 바 있다. 김 교수는 또한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회',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단체의 공동대표, 제주대인연구공동체 원장 등을 역임해왔다.

정시모집 3.45:1 경쟁률… 1858명 모집에 6406명 지원

초등교육·수의에 최고 경쟁률
수시등록률 2.0% 포인트 상승

지난달 27일 2013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858명 모집에 6406명이 지원해 평균 3.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39대 1의 경쟁률보다 0.06%p 높은 수치다. 전체 지원자의 43%에 해당하는 2772명이 접수 마감일에 몰렸다. 모집 군별로는 '나군'이 1041명 모집에 2888명이 지원해 평균 2.77대 1, '다군'은 817명 모집에 3518명이 지원해 평균 4.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단위별로는 '다군' 초등교육과가 17명 모집에 533명이 지원해 31.3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다군' 수의예과가 13명 모집에 226명이 지원해 17.38대 1로 그 뒤를 이었다. 정원에 미달된 학과는 없었

다. 합격자는 2013년 2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13학년도 수시 1·2차 모집 최종등록률이 87.7%를 기록, 작년 대비 2.0%포인트가 상승했다.

옛 대학병원 건물 명칭 공모

기획처(처장 양덕순)가 오는 15일 까지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옛 제주대병원 병원 건물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 공문이나 이메일(kbs5273@jejunu.ac.kr)로 응모하면 된다.

수상작은 내년 2월중에 전자문서 시스템 공지사항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응모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평가과(754-2142)로 문의하면 된다.

최초 여성 학군사관후보생 2명 탄생

제주대 최초의 여성 학군사관후보생이 탄생했다. 이번에 탄생한 주인공은 2명으로 고은혜(무역학과·왼쪽 사진)씨와 임금빈(관광개발학과)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번 제61기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에 남학생 26명, 여학생 2명이 각각 합격했다. 이번에 선발된 학군사관후보생들



은 2년간 교육과정과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후 해군 장교로 임관한다.

LINC 경진대회 열려 이석주씨 단장상 수상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는 지난달 26일 제주시 내추벌파크리조트에서 조선대 사업단과 공동으로 6개 대학이 참여한 '2012년 호남·제주권역 창업동아리 아이팀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이석주씨가 '미세조류를 이용한 제품개발'가 조선대 단장상을 받았다.



✓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희망찬 새해에도 농협제주대학교지점은
항상 제주대학교와 같이 하겠습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충심으로 신년인사를 드리고,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 않습니다.

〈농협제주대학교지점 직원 일동〉

NH 농협

사 설

미래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해

지역간 세대간 치열한 논쟁 속에 치러진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거 지역의 대립문제보다는 세대의 극명한 가치 차이의 폭은 이 시대의 새로운 사회문제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성과중심의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일상생활의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활동기반으로 자리 잡은 인터넷 환경문화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정보화 사회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세대에겐 스마트폰은 다양한 정보수집과 전달, 소통, 쇼핑 등에 이용하는 중요한 생활수단이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적지 않은 대학생들은 단순히 인터넷 매체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이슈에 대하여 ‘그렇다더라’ 식의 스스로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것 같아 여전히 주체적인 소통의 환경이 성숙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자본주의 체제 및 인간의 생활방식, 현대과학기술의 폐해 등을 날카롭게 비판해온 세계적인 행동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저서「소유의 종말」에서 급속한 기술정보의 발달은 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활변화를 유발시키게 되고 궁극

적으로 소유가 아닌 ‘접속’의 사회로 변하게 되어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는 통신사의 독점화와 거대화, 그리고 인간의 문화 활동을 네트워크화와 상업화 문제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네트워크화시켜 접속할 수 있는 능력과 관리에 따라 차별화되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요즘 대학생들의 SNS 현실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과는 다른 상대방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의견을 올린 친구들을 일방적으로 네트워크 관계를 차단하거나 탈퇴를 강요하는 현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스스로가 SNS만이 갖는 강점인 자유로운 의견과 소통을 단절시키는 것이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은 이 시대가 직면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한 냉철한 비판위에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생각의 유연성,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생(大學生)인 것이다.

희망찬 새해, 2013년은 대학생들이 우리사회를 보다 넓은 시야에 넣어 생각하고 깊은 마음으로 폭넓은 지식을 쌓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조언하고 싶다.

교생실습기간 3~4월로 앞당겨야

교육실습(敎育實習)은 예비교사들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기술·태도 등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직·간접적 경험을 통하여 직접 배우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때문에 예비교사들에게는 그동안 대학교육과정에서 습득한 교과교육의 제반 이론을 교육현장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하며, 이의 창조적인 적용 방법을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활동인 것이다. 때문에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학생들이 미래의 교육현장을 직접 경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도교사의 책임 아래 학교에서의 교직생활이나 수업 참관 등을 주로 경험하고, 지도교사와 함께 학급경영, 학생지도 등과 같은 교육활동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실습 후반에는 해당 교과에 대한 실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결과를 총합하여 교육실습생을 평가한다. 교육실습은 대개 2학점을 부여하여 교직과정에 포함하며, 교직과정 총 이수학점에 포함한다.

적절한 실습지도가 수반된 교육실습은 예비교사가 교사로서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장점을 발휘한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실습이 차지하는 시간은 약 4주 정도로, 다양하고 실천적인 교육실습을 경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더러는 교과목 특성에 따라 사전 실습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나, 이 또한 그 교과와 관

련된 영역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교육실습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부분보다 관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결국 교사로서 교단에 섰을 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족한 교육실습 기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데, 우리 대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와의 실습기간 조정과 같은 적극적인 협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대체로 우리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의 기간에 교육실습을 부과하는데, 이 기간은 중간고사와 같은 교육평가와 기념일 및 학교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실습에 부여된 4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장애를 준다. 결국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 현장의 체득보다는 제한적인 범위 내의 경험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게 된다.

우리와 달리 다른 지역의 대학들은 교육실습 기간을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로 정해 놓아, 교육실습 일수에 대한 결손을 최소화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활동을 직접 체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예비교사들을 위한 의미 있는 접근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도 교육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실습 기간을 조정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총장 공모제 규정 공포... 차기 총장부터 공모

업무협약에 따라 교과부에 관련 자료 제출

총장추천위원회 학생참여 결국 성사돼

대학본부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세칙’을 11월 30일부로 공포했다.

이로써 총장공모제가 새로운 총장 임용제도로 자리 잡게 됐다. 제도 개정은 교직원 투표, 제도개선추진위원회 심의, 평의회 의결 등을 통해 이뤄졌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는 지난 3월 21일 실시된 ‘총장후보직선 추천제도 개선 여부’에 관한 찬반 투표’에

서 교직원 68.7%가 총장후보 직선추천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함에 따라 대학본부는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제주대학교간 구조개혁 방안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에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를 11월 말까지 교과부에 제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월 23일에는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학생들이 대거 참석해 총장 추천위원회의 위원에 학생이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재우 부총장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총장선출을 할 권리가 배제돼 있다. 대학의 장을 뽑는 기구에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보다는 교수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학생들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지난 11월 30일 공포된 규정 제4장 추천위원회 23조 1항에는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5인 이상의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천선발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제도 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돼 7번의 회의를 통해 시행 세칙 제정 등이 이뤄졌다. 또 지난 11월 27일 규정심의위원회, 임시 학무회의가 열려 이를 심의했다. 이어 29일 평의회에서 심의의 의견 수렴보다는 교수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지 기자

‘탐라문화’ 권위있는 학술지로 자리매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제주지역 발행 학술지 중 최고

탐라문화연구소(소장 윤용택)가 발간하는 학술지 ‘탐라문화’가 전문 학술지로서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한국연구재단(NRF)의 등재지로 선정됐다.

지난달 12일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도 학술지평가를 통해 정시발행 여부, 편집위원 실적, 투고 및 게재율, 게재 논문의 질적 수준 등을 종합 심



사해 ‘탐라문화’를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 격상했다.

이번 등재지 선정은 제주지역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들 가운데 첫번째이다.

윤용택(철학과 교수) 탐라문화연구소장은 “이번 등재지 선정을 통해

‘탐라문화’가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전문 학술지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탐라문화연구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제주학 연구자들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탐라문화연구소는 1967년 3월 제주도 문화에 관한 인문사회과학 제 영역에 걸친 연구와 분야간 협동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동안 ‘탐라문화’, ‘탐라문화총서’, ‘탐라문화학술총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면서 제주도 역사, 문화에

스마트러닝 도입... 겨울방학 계절학기 시범운영



스마트기기로 수강 가능

새학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제주대에 ‘스마트러닝’ 강좌가 겨울방학 계절학기부터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선보인 ‘스마트러닝’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강의를 받고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원(원장 김일환)은 스마트 캠퍼스 실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스마트러닝’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겨울방학 계절학기에 1개 강좌를 개설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개설되는 강좌는 ‘제주해녀의 이

해’로 강좌개설 기간은 12월 26일부터 4주 동안이다.

정보통신원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점차적으로 스마트러닝 강좌를 확대 서비스 할 예정이다.

‘스마트러닝’은 모바일 기기에 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강의 수강부터 과제, 학습노트, 토론, 질의응답 등 모든 강의실 교육과정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뤄진다.

독서토론·학습동아리 모집 기초교육원서 2일까지 접수

기초교육원(원장 현승환)이 모달링 북적북적(독서토론동아리), 느영나영 학습동아리를 오는 2일까지 모집한다. 활동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은 3일 발표한다.

북적북적은 교원 1명과 재학생 5~6명으로, 학습동아리는 재학생 5~6명으로 구성하면 된다. 신청은 기초교육원 홈페이지(jctl.jeju.ac.kr)에서 할 수 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창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하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JDC 사랑나눔 초등영어캠프♡

1. 주 최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 주 관 : 제주대학교외국어교육원
3. 참가인원 : 100명(초등 5~6년)
4. 캠프기간 : 2013. 1. 8(화)~1.18(금)(10박 11일)
5. 장 소 : 외국어교육원 및 학생생활관
6. 프로그램 내용

구 분	내 용
정규수업	말하기, 읽기/어휘, 쓰기, 듣기, 문법
주제별 수업	노래, 연극, 영화감상, 체육, 게임, 쿼즈, Cooking, 외국문화 English Village체험
야외체험학습	현장학습(Field Trip)
그룹별 콘테스트	Drama Contest, Singing Contest
기타행사	레벨테스트, Ice Breaker, 교실 꾸미기, 환영 - 송별 파티, 항상 도영가 등

♡ 외국어교육원 초등영어 Program 안내 ♡

1. 개설강좌 : Starter~Level 6(7단계)
2. 강좌시간 : pm 3:00~6:00(강좌별 월~금 1시간)
3. 모집방법 : 수시접수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 (064)754-2291~2292, http://fli.jeju.ac.kr

사람들

박경숙 교수, 여교수협의회장 선출

박경숙(인문홍보학과) 교수가 최근 열린 여교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년이며, 제주대 교수회 부회장(당연직)도 맡게 된다.

박 교수는 “여교수협의회 구성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금까지 협의회가 해왔던 다문화가정 지원과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개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공동체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희 교수, 학술논문 최우수상 수상

김정희(경영학과) 교수가 ‘유통경영학회지’에 우수 논문을 게재해 사단법인 한국유통경영학회가 수여하는 ‘2012년 최우수 학술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학술 논문상 수상식은 지난달 8일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에서 한국물류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유통경영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2012년도 동계공동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유통경영학회지는 한국유통경영학회(회장 이성준 교수)에서 물류와 유통에 관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다.

한편 김 교수는 유통경영학회지에 ‘농약판매점포의 정보공유전략이 관계품질, 불확실성,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공동연구자 김병찬) 등 연구논문들을 다수 게재했다.



손영수 교수, 제주도문화상 수상

손영수(산업디자인학부) 교수가 지난 달 20일 오전 10시 제주도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12년도 제주도문화상에서 예술부문으로 수상했다.

손 교수는 제주대학교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교직에 머물며 제주 디자인 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고있다. 또한 손 교수는 ‘평화의 섬 제주’ 상징 이미지, 제주 색채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했다.



이창준 교수, 한국체육학회 부회장 선임

이창준(체육학부 교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부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 1층 올림픽아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체육학회(회장 전병관) 제47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 부회장의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이다.



장애란 교수, 우수논문상 수상

장애란(의류학과) 교수가 김현미(제주한라대 뷰티아트과) 교수와 함께 최근 충북대에서 열린 2012 ‘한국생활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기메(Game)를 활용한



니레시 샤르마 원생, ‘젊은 우수과학자상’ 수상

니레시 샤르마(동물생명공학과 박사과정·인도) 대학원생이 지난 11월 26일부터 5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아 태평양 축산학회에서 ‘젊은 우수과학자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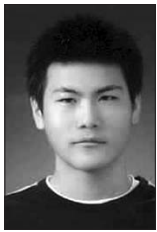
이번 논문의 연구 주제는 ‘홀스타인 젖소의 건강한 유선조직의 지표로서의 우유 내 체세포 분포’이다. 그는 이번 학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창기·교영민 학생, 아이디어 부문 대상 수상

이창기(경영학과 4·왼쪽 사진)·교영민(경영학과 3)씨가 지난 11월 13일에 발표한 ‘2012 시니어 창업 인식개선 공모전’에서 중소기업청장상인 아이디어제안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응모작은 ‘시니어 창업교육의 방향과 비전제시’이다. 이들은 작품을 통해 ‘베이붐 세대의 부모와 성인자녀가 함께 참여하며 설계하는 가족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성에 주목했다.



제32회 백록학술상 당선작

농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대응양상

- 성산읍 ‘수산초등학교’와 ‘풍천초등학교’의 통폐합 반대운동 중심으로 -

김혜림·김세훈·김정희·오진영(일반사회교육전공 3)

강승호·최민관·김민아·명소리(일반사회교육전공 2)

기승환·강효현·김동현·김예사·윤수광(일반사회교육전공 1)

I. 문제제기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글방’이나 ‘서당(書堂)’에서 동네의 아이들을 모아 놓고 주로 개인적인 지도를 하게 된 데서 시작되었다. 초등교육은 처음부터 소규모에서 출발한 셈이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에 상관없이 학교의 규모나 학생 수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로의 전환, 1980년대 첨단산업의 육성 등 공업 위주의 발전정책은 우리나라의 도시화, 산업화를 급속히 진행시켰고,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청·장년층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었다. 결국 도시지역의 학력아동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농촌지역은 감소하여, 농촌의 초등학교들이 소규모화 되었다.

농촌 초등학교의 소규모화는 학교와 학급수의 규모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줄여 나가는 교육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교육 당국은 1981년에 소규모 학교(전체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 통폐합(한 학교가 인근 다른 학교로 흡수·통합되는 본교 폐지로 의미를 한정) 기준을 마련하여 198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교육투자의 효율성과 정상적인 교육상황 구축을 통한 학습결손의 방지 등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정책은 학생들의 통학과 생활의 불편, 농촌의 유일한 공공기관이며 문화공간인 학교 폐쇄로 인한 지역 주민의 박탈감 등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이는 다시 농촌 인구의 이촌향도 현상을 부추기고 농촌을 더욱 파쇄화케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성산읍 역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은 2012~2016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2013년도에 수산초등학교(이하 수산초)와 풍천초등학교(이하 풍천초)의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성산읍 주민들, 특히 수산초가 소재한 수산1리 주민들과 풍천초가 소재한 신천리의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태이다. 그래서 현재 성산읍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주민운동이 형성되고 전개되는 과정에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영역 이외에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도 지역주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교육권 그리고 교육환경과 관련된 지역주민운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이는 도시 지역 이든 농촌 지역이든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교육 소외 계층이라 믿는 농촌 지역에서 교육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지역주민운동을 분석해 볼으로써, 주민들이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권 이상의 권리, 그 중에서도 교육권을 어떻게 추구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수산초와 풍천초의 통폐합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틀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대응 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성산읍 지역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로서, 교육적으로도 큰 함의를 지닐 수 있다.

II. 논의의 배경과 분석틀

1.이론적 논의

농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주민의 대응 양상, 즉 성산읍의 지역주민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지역주민운동이 무엇인지 알고 그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지역주민운동이 속하는 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 또한 살펴볼 것이다.

이호(1999)에 따르면 지역주민운동이란 ‘주민’이란 말이 내포하고 있듯이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생활에서부터 이 사회까지를 변화시켜 나가려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운동은 대중운동이며,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쟁점들을 통해 실현된다. 주민들이 당장 겪고 있는 생활상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는 활동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까지가 모두 주민운동의 영역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분류하면 <표1>과 같다.

<표1> 지역주민운동의 분류

분류	형태	특징
외부 자극을 통한 조직화	사안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동원	-대중적 -대중적 정치력의 형성
프로그램 중심의 일상활동	주민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일상 활동 유지가 용이 -차분하고 다양한 주민 교육이 가능
공동체 형성과 마을만들기	뜻이 맞는 이들끼리의 모임 운영	-주민공동체의 대안제시 -주민참여의 활성화 전개

외부 자극을 통한 조직화 활동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반대운동이나 철거운동과 같은 주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프로그램 중심의 일상 활동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활동에서부터 녹색가계의 운영, 주민도서관의 운영, 사회학교의 운영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한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 활동도 최근에는 급속도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외부 자극을 통한 조직화’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매우 활성화된 유형인데,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하는 성산읍의 지역주민운동은 바로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청의 통폐합 정책을 외부 자극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외부 자극으로 성산을 주민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지배적으로 형성되고, 그에 따라 지역주민운동이 집단동원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지역주민운동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경(1997)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를 차산리 주민들이 차산리 고래산에 건설될 예정인 골프장에 반대하는 주민운동을 1990년부터 1997년까지 7년간 벌여 일단의 성공을 거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 지역공동체의 통합을 핵심적 성공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운동조직체의 지도부가 운동의 방향을 경제적 보상은리로 흐르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고 환경파괴에 맞선 주민생존권 수호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운동의 정당성을 유지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1998)은 경남 남해의 주민보상운동 및 현대제철 반대운동의 두 사례를 통해 지방화 시대의 지역정치에서 주민운동의 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지역 내에서의 정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주민 운동의 가능성이 운동조직의 결사와 함께 나타나며, 운동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운동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정직(2008)은 매항리 일대의 연안지역과 해안지역에 설치되었던 군사시설인 매항리 폭격장에 대한 폐쇄를 주장하는 주민운동을 분석하였다. 1951년부터 2005년까지를 총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작은 시골마을에서 자생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보고 있으나, 님비(NIMBY)현상적 운동의 측면 또한 간과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외부 자극을 통한 조직화 유형에서도 대부분 위험시설 혹은 혐오시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교육 관련 지역주민운동, 즉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와 지역주민운동을 연결시키는 구체적인 선행연구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육권 그리고 교육환경과 관련된 지역주민운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앞서 ‘연구목적’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교육권과 관련된 지역주민운동을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틀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대응 양상을 분석해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통폐합 정책 그리고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들이다. 이때 통폐합 정책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성산을 수산초와 풍천초의 통폐합을 다루며, 지역주민은 통폐합 대상 학교가 위치한 수산1리 그리고 신천리 주민으로 한정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수산1리와 신천리의 위치와 인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성산읍사무소 소재지인 고성리에서 수산1리는 서쪽으로 약 3km(리사무소 중심)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천리는 남서쪽으로 약 12km(리사무소 중심)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표2> 수산1리와 신천리의 인구 구성

마을	전체 인구수(명)	성별 인구수(명, %)
수산리	262	남성 137(52.3)
		여성 125(47.7)
신천리	677	남성 358(52.9)
		여성 319(47.1)

수산1리와 신천리의 전체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신천리가 수산1리의 약 2.5배로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수산1리는 각각 남녀 52.3%와 47.7% 그리고 신천리는 각각 남녀 52.9%와 47.1%로 두 마을 모두 기본적으로 남녀 약 5:5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문헌연구법, 심층면접법, 그리고 질문지법을 병행해 사용하였다.

문헌연구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 이미 연구하여 발표된 연구 결과물이나 역사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한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시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폭넓게 연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논문을 참조하여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였고, 수산초와 풍천초 사례에 관련된 통폐합 정책의 배경과 그 과정을 알아보았다.

심층면접법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과 직접 대면 접촉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구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응답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문헌으로 포착할 수 없는 개인의 동기나 태도, 감정 등을 알아낼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분석틀에서 대부분의 분석변수에 대한 성산을 지역주민들의 대응 양상을 알아보았다. 심층면접은 약 6개월(5월~10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신천리 관계자, 남, 59세, 교육 관련 입법 관계자, 남, 40세, 제주교육연대 관계자, 여, 42세, 성산읍협의회 회장, 양만길, 남, 52세, 성산읍 연합청년회장, 고종필, 남, 42세 총 5명이다.

질문지법은 조사하려는 내용에 관해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증적 연구 방법에서 수량화 및 통계를 통한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분석틀의 분석 변수 중 주로 ‘지역사회의 통합’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2012년 5월 25일 ~26일에 걸쳐 질문지법을 실시하였는데, 25일은 수산1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26일은 신천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활동 결과 총 수산리 103부, 신천리 90부의 응답지를 수거하였으며, 응답이 유의미한 수산리 102부, 신천리 88부를 통계 분석 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spss ver.17을 사용하였으며 주로 빈도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수산1리와 신천리로 나누어 정리하면 각각 <표 3>, <표 4>와 같다. 설문지 결과를 수산1리와 신천리 주민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은 지역사회의 통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의도이며, 초점이 두 마을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비교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다.

<표3> 조사대상자의 특성 (수산1리)

사회 인구학적 변수	항목	비율(%)
성별	남자	55.3
	여자	44.7
나이	20대 이하	0
	30대	3.9
	40대	31.4
	50대	20.6
	60대 이상	44.1
	농업	57.3
직업	어업	1.9
	공무원	9.7
	주부	7.8
	자영업	7.8
	서비스직	1.0
	무직	10.7
	기타	3.9
거주기간	0~5년	11.7
	6~10년	2.9
	11~20년	14.6
	21~30년	10.7
	31년 이상	60.2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14.7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21.5
	고등학교 졸업	44.2
	대학교 졸업 이상	19.6
	그렇다	43.6
수산초 졸업 여부	그렇지 않다	55.4
	있다	86.1
자녀 여부	없다	13.9
	그렇다	75.0
자녀의 수산초 재학 혹은 졸업 여부	그렇지 않다	25.0

<표 4> 조사대상자의 특성 (신천리)

사회 인구학적 변수	항목	비율(%)
성별	남자	56.7
	여자	43.3
나이	20대 이하	5.6
	30대	11.1
	40대	16.74
	50대	28.7
	60대 이상	40.0
	농업	38.2

직업	어업	14.6
	공무원	3.4
	자영업	3.4
	서비스직	6.7
	무직	12.4
거주기간	기타	6.7
	0~5년	6.7
	6~10년	5.6
	11~20년	10.0
	21~30년	11.1
	31년 이상	66.7
최종학력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21.1
	중학교 졸업	22.2
	고등학교 졸업	40.0
	대학교 졸업 이상	16.7
수산초 졸업 여부	그렇다	48.9
	그렇지 않다	51.1
자녀 여부	있다	88.8
	없다	11.2
자녀의 수산초 재학 혹은 졸업 여부	그렇다	78.0
	그렇지 않다	22.0

수산1리와 신천리의 조사대상자들은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성별의 경우 수산1리는 각각 남녀 55.3%, 44.7%이며 신천리는 각각 남녀 56.7%, 43.3%로 <표 2>에서 언급한 성별 인구 비율 특성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설문에 응답한 남녀의 비율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나이는 두 마을 모두 60대 이상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거주기간을 보면 수산1리와 신천리 모두 31년 이상의 비율이 각각 60.2%와 66.7%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각 마을에 오래 살았음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자들의 수산초 혹은 풍천초 졸업 여부를 살펴보면 두 마을 모두 졸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0%를 넘었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재학 그리고 졸업 비율은 각각 75%와 78%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3. 분석틀

본 연구는 “농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요 초점으로 삼아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정치적 기회 구조, 지역사회 통합, 조직 요인 그리고 자원 동원의 네 가지를 분석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하위변수와 분석초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 성산을 지역주민운동의 분석변수와 초점

분석변수	하위변수	분석초점
정치적 기회 구조	정치적 환경	일반 교육위원회과 교육청
지역사회의 통합	예향심	지역주민들의 ‘우리의 식’
	문제 의식	통폐합 사실 인식, 관심도
	주민 단결	지역 여론의 방향성
	지도자	
조직 요인	조직 목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제주연대
	조직의 규모와 형성식	
	재정 동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제주연대의 재정 확보 계획
	전문가 동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제주연대에 속하는 사회단체, 교육관련 전문가
자원 동원	연론 동원 및 형성	지역언론과 지역신문(JJ일보)

첫 번째 분석변수는 ‘정치적 기회 구조’로서, 정치적 기회는 ‘지속적인 - 그러나 반드시 공식적이거나 영구적일 필요는 없는 - 사람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이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는 정치적 환경’으로 정의된다. 집단행동에 대한 이전의 여러 접근방식들, 즉 심리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그리고 문화/이데올로기적 접근에 뒤이어, 많은 사람들이 좀더 정치적이고 구조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여 ‘정치적 기회구조’라는 개념으로 귀착되었다.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한 아이싱어(Eisinger)는 1960년대 미국의 43개 도시의 폭동을 연구하며 정치적 기회 구조를 ‘집단들이 권력에 대한 접근의 획득과 체제의 조작을 가 능케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정도’라고 정의 하였다. 하위변수로는 정치적 환경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분석변수는 ‘지역사회의 통합’이다. 이는 지역주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주민이 분열되지 않고 단합된 힘으로 투쟁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라 할 수 있다. 애향심, 문제의식, 주민 단결의 하위변수들을 통해 통합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세 번째 분석변수는 ‘조직 요인’인데, 이는 운동의 주제 세력이 그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조건

이 되는 것으로, 운동의 틀을 짜고 이를 기반으로 운동을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위변수에는 지도자, 조직 목표, 조직의 규모와 형성성이 있다.

마지막 분석변수는 ‘자원 동원’으로, 여기에서 자원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는데, 참여자들의 인적·소속·와 물질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과, 단체 행동에 필요한 화관이나 통신기재 같은 시설물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동원은 집합행동에 필요한 자원을 집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과정을 뜻한다. 결국 자원 동원은 지역운동이 사용가능한 모든 인적·물질·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조직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하위변수로는 재정 동원, 인론 동원 및 여론 형성, 외부 조직 및 전문가 동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의 분석변수 그리고 열 가지의 하위변수를 통하여 성산읍의 지역주민운동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각각의 하위변수와 분석초점은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III. 통폐합 정책의 전개과정

1. 정책의 형성 배경과 현황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성장 위주의 국가 정책 기조 속에서 분배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됨으로써 사회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었다.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된 도시화로 인구가 도시에 집중함에 따라 농촌이 가지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계속 이농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농촌 인구의 감소는 농촌 교육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젊은 연령층의 이농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산읍 또한 이러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 표는 1985년부터 2010년까지의 성산읍 인구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표6> 성산읍 ‘전체인구·초등학교 재학연령인구’ 변화추이

연도(년)	전체인구(명)	재학연령인구(만10세~만14세)(명)
1985	19,829	2,502
1990	18,374	1,702
1995	15,639	1,331
2000	13,387	895
2005	12,459	889
2010	10,994	747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성산읍의 전체인구와 초등학교 재학연령인구(이하 재학연령인구)는 모두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단적으로 1985년과 2010년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2010년의 전체인구수는 1985년 전체인구수의 약 55% 정도로 줄어들었다. 또한 2010년의 재학연령인구수는 1985년 재학연령인구수의 약 30% 정도로 줄어들었다. 즉 성산읍의 전체인구수가 약 1/2로 줄어드는 시간동안, 재학연령인구수는 약 1/3로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전체인구수와 재학연령인구수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재학연령인구수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0년의 재학연령인구수는 747명밖에 되지 않는다. 다음 표는 성산읍의 초등학교 현황을 보여준다.

<표7> 성산읍내 초등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명)	주소
성산초등학교	77	성산리 333
시흥초등학교	61	시흥리 1214-4
신산초등학교	58	신산리 963
동남초등학교	299	고성리 1128-1
수산초등학교	25	수산리 580
온평초등학교	37	온평리 1577
풍천초등학교	29	신천리 603

현재 성산읍에는 총 7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기에,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학교당 약 106명(2010년 기준)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성산읍 소속 행정리 인구수, 초등학교 위치, 교통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학생수가 평균적으로 분산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성산을 내에서도 학생수가 많은 초등학교와 학생수가 적은 초등학교로 나뉘는 것이다. <표7>에서 알 수 있듯이 동남초의 학생수는 299명인 반면에, 나머지 초등학교의 학생수는 (6명으로 이어짐)

2013년 1월 1일 화요일

1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재학연령인구수가 많은 도시라면 그 분산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농촌은 재학연령인구수 자체가 적은 것이 문제인데, 그 재학연령인구가 분산되기에 더욱 큰 문제인 것이다.

특히 수산초와 풍천초의 경우, 그 학생수가 3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청의 통폐합 정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다음 그림은 수산초와 풍천초의 위치를 보여준다.

2.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2012~2016)’의 내용

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학생들의 개발사업지역 신설학교로의 급격한 이동결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복식수업 등의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 왔다.

2009.5	2009년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
2011.9	2012~2014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
2012.5	2012~2016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

<표8>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첫 번째로, ‘2009년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이하 2009년도 추진계획)에서는 학생 수 60명 이하 분교 그리고 20명 이하의 분교를 대상으로, 3년간의 유보기간을 두어 학생 수 변동추이와 학생 수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면밀히 종합 분석하여 이웃학교로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당시 학생수가 60명이었던 수산초와 학생수가 51명이었던 풍천초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었다.

두 번째는 ‘2012~2014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 (이하 2012~2014년도 추진계획)으로, 이때 수산초와 풍천초를 2012년 3월 1일 자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성산을 주민들의 반발로 교육청은 다시 통폐합이 아닌 분교장 격하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는 2009년도 추진계획과 달라진 내용이 적용된 것이다. 그 내용은 <표9>과 같다.

<표9> 2012~2014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 中 - 2009년도 추진계획과 달라진 내용	- 분교의 경우 해당연도에 통·폐합 반대 시 분교장으로 개편 - 도서지역 학교로 학생 수 30명 이하인 분교의 경우 분교장으로 개편함 - 학생수 100명 이하인 일반학교 및 60명 이하인 통합운영학교의 경우도 통·폐합 관리대상학교에 포함
--	---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교육청은 수산초와 풍천초의 분교장 전환을 입법 예고하였다. 따라서 수산초는 동남초를 분교로 하는 동남초 수산분교장으로, 풍천초는 신산초를 분교로 하는 신산초 풍천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2011년 12월 제주도의회는 서귀포 성산을 풍천초, 수산초 그리고 대정읍 가파초를 분교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풍천초, 수산초, 가파초는 2013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들 학교는 2013년 3월 1일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부칙을 붙인 것이다.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1년간의 유예기간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2012~2016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 (이하 2012~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추진계획이다. 도의회의 수정가결에 따라 서귀포 성산을 풍천초, 수산초 그리고 대정읍 가파초가 2013년도에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다. 다음 표는 2012~2016년도 추진계획 중 서귀포시의 연도별 통폐합추진 대상학교를 보여준다.

<표10> 서귀포시의 연도별 통폐합 추진대상학교		
통·폐합연도	대상학교	비고
2013년도	풍천초, 수산초, 가파초	
2014년도	은평초	
2015년도	가마초	
2016년도	홍산초, 하례초, 청천초, 토산초, 신대초	
유보	덕수초	꾸준히 학생수가 60명 이상으로 유지되어 유보
계	11교	

성산읍의 경우, 수산초와 풍천초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온평초등학교(이하 온평초)의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12년 7월 제주도 도의회 부의장자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영호(새누리당, 성산읍) 의원은 ‘풍천초, 수산초, 가파초는 2013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들 학교는 2013년 3월 1일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부칙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2년 9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본회의 상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교육위원회 의원 9명중 과반수가 넘는 의원 5명이 상정보류

를 요청함에 따라 문석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보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Ⅳ. 통폐합 반대운동 분석

수산초와 풍천초의 통폐합에 반대하는 성산읍의 지역주민운동을 앞에서 제시한 분석틀, <표 6>에 따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정치적 기회 구조

1) 정치적 환경
정치적 환경, 즉 주민들이 지역주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는 일부 교육위원 측면 그리고 교육청 측면의 두 가지로 봐야한다.

먼저 일부 교육위원들은 수산초와 풍천초의 통폐합, 더 나아가 제주도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 교육위원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제주도의회에서의 의견 피력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다.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되요. 그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의회에 와서 입장을 얘기하고, 또 그분한테만 얘기한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의회에 다른 의원들한테도 얘깁하고, 교육위 상임위원들한테도 얘기고. 그리고 이제 또 지역 의원님은 현장에 가서 가가호호 방문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가서 교장선생님 뒀 운영위원들하고도 얘기고, 각종 무슨 행사시에 가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뭐 이렇게 되는거죠.” (교육 관련 입법 관계자, 남, 40세)	
---	--

그 소통은 일반적으로 교육위원 혹은 지역주민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의 상호작용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 수준의 조직적인 방식으로 교육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아닌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이제 개인별로도 의견을 내기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성명서에 서명을 하는 형태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여기에 와서 직접 피력도 하고, 그리고 교육청에 제출하고, 의원님께 얘기도 하고, 언론에 공표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입장 표명을 합니다.”	
--	--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아주 잘 되고 있죠. 주민들은 지지와 뜻을 표하고, 이제 또 간단회 했어요.”

(교육 관련 입법 관계자, 남, 40세)

그 소통은 일반적으로 교육위원 혹은 지역주민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의 상호작용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 수준의 조직적인 방식으로 교육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아닌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이제 개인별로도 의견을 내기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성명서에 서명을 하는 형태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여기에 와서 직접 피력도 하고, 그리고 교육청에 제출하고, 의원님께 얘기도 하고, 언론에 공표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입장 표명을 합니다.”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아주 잘 되고 있죠. 주민들은 지지와 뜻을 표하고, 이제 또 간단회 했어요.”

(교육 관련 입법 관계자, 남, 40세)

그 이유로는 특히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자신의 출신 지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 지역의 표심에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 될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다.

“지금 이번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구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은 지역에 거의 거주를 하거나, 행사시에는 계속 가기 때문에 뭐 거의 그분들과 함께한다는 용어를 표현하는게 적절하다고 보겠죠.”

“표를 받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압박이죠. 이 분이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더라는 인식이 들었을 때 내가 다시 의회에 입성할수 있느냐, 그게 안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교육 관련 입법 관계자, 남, 40세)

하지만 모든 교육위원들이 제주도의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자칫 하면 교육청과 충돌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그 의견 표명에 있어서 교육위원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보류된 이유가 있다. 결국 통

폐합에 찬성하는 교육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은 주민들의 몫인 것이다.

“근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원도 관점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에 찬성과 반대를 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빙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정보류가 됐던 것이고 이제 박빙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지역주민들의 역할이죠.”

(교육 관련 입법 관계자, 남, 40세)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역주민들에게 꼭 비판적이지는 않다. 지역주민들은 몇 년 전과 달리 통폐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고, 주민들의 편에 서주는 교육의원들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각각되지 않고, 상정보류가 된 상황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즉 일부 교육위원들의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는 성산을 지역주민운동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것이다.

“이제 3분 의원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많은 분들이 있고, 제도적으로 이러한거를 하고자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 우리는 이번엔 가능하겠더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일단 의원들께서도 이제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표현하고, 역할을 충분히 하겠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교육 관련 입법 관계자, 남, 40세)	
--	--

하지만 교육청은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일부 교육위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타 시도에는 지역주민학부모의 의견을 100프로 수용하는데가 많아요. 제주가 지금 과거에 했던것을 지금까지 고수하는 대표적인 지역이죠.”

(교육 관련 입법 관계자, 남, 40세)

특히 지역주민들은 교육청과 그 정책에 관한 반감이 굉장히 강했으며, 교육청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 방식에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교육청과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그 사람 공약에 학부모와 주민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폐합을 추진 할 것이고 또 농어촌 살리기와 연계하여 적정 규모화를 육성하겠다,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육성하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농어촌 살리기하고 학교 적정규모 육성 적정규모라는 것이 학생수가 지금 적다고 해서 당장 이거를 없애는 것이 적정 규모화가 아니거든요.”	
--	--

“공청회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명회만하나니 설명회는 일반적으로 자기 의견을 설명하는 거고 공청회라는 거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집단 이익집단 또는 관련된 집단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공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주교육연대 관계자, 여, 42세)

“어떤 대화로서 협의점을 찾아 갈려고 그래야지. 뭐 법으로 해가지고 뭐 내년 몇월달되면 한다 폐교시킨다 선포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경 해서 분교시킨다. 그거는 좀. 지금 사는 시대가 뭐 2012년인데, 그거는 뭐 누가 납득을 할거야.”

(성산을 연합청년회장, 고종필, 남, 42세)

정치적 환경을 생각해보면, 일부 교육위원들의 통폐합을 막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와 지역주민들과의 잦은 의사소통은 성산읍의 지역주민운동에 동기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 보류되었지만, 성산을 지역주민들에게 ‘수산초와 풍천초의 통폐합을 막는 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통폐합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이러한 동기 부여를 좌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또 다른 정치적 환경이다. 따라서 정치적 환경이 꼭 성산읍의 지역주민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는 확인할 수 없다.

2. 지역사회의 통합

1) 애향심
지역사회의 통합의 하위변수로서 애향심은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애향심은 성산을 주민들이 성산읍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애향심의 고취에 있어, 성산읍의 학교들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학교를 마을의 구심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문화시설이 도시지역만큼 충분하지 않아 마을의 큰 행사는 대부분 마을의 소규모 학교에서 치러진다. 거꾸로 운동회와 같은 학교 행사가 마을 전체행사로 커지기도 한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애향심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 척도가 될 수 있다.

“마을 그 학교는 사실 정말 마을사람들의 문화에 어떤 구심점이기도해요. 뭐 행사같은거 있으면 학교에서 하고 또 모이기도하고 머하고 많이한단말이에요.”

“수산리는 이제 통폐합학교라고해서 거기..정부서 지원을안해주니깐. 그냥 학교에 뭐 엉망되고있으면 해달라는데 안해주니깐. 마을사람들이 할수없이 돈

들어서 자기네가하고 농사일 짓다말고 가서 청년회 가서 또 일해주고 그러면서 학교를 가꾼단 말이에요. 왜?우리동네학교니까. 우리학교니까.”

(제주교육연대 관계자, 여, 42세)

성산을 지역주민들의 애향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동네’ 그리고 ‘우리학교’라는 의식이 퍼져있다는 점이었다.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일, 예를 들어 학교 건물 보수, 학교 정원 가꾸기 등에 지역주민들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수를 받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식’이 큰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산리리와 신천리 주민들이 통폐합 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는 다음과 같다.

〈표11〉 통폐합 결정의 지역사회에의 영향 인식 비교

영향 인식	수산1리	신천리
매우 긍정적인 영향	11	8
긍정적인 영향	8	17
그저 그럴 것이다	30	29
부정적인 영향	33	31
매우 부정적인 영향	18	15

수산리와 신천리 모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수산1리는 총 51% (매우부정적인영향 18%, 부정적인영향 33%)였으며, 신천리는 총 46.1% (매우부정적인영향 14.6%, 부정적인영향 31.5%)였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통폐합 결정의 지역사회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저그럴 것이다’의 응답률을 보면 수산1리는 30%, 신천리는 29.2%로 그 비율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응답자의 약 1/3이 이러한 경향을 띠는 것이다. 또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의 비율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의 비율이 높아, 지역주민들이 극단적인 부정으로 는 치우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높은 애향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 애향심의 증거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났다으며, 그러한 마음은 다시 학교에 대한 자발적 봉사를 유발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농촌의 ‘우리의 식’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한 의식에 기초하여, 소규모 학교 통폐합 결정이 지역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나, 그러한 애향심이 극단적인 앙상을 띠지는 않았다.

2) 문제의식 구체적 행동은 항상 그 상황에 관한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즉 일단 문제의식을 느껴야 그 의식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수산초와 풍천초의 통폐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문제의식을 행동으로 구체화 할 때, 성공적인 지역주민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통폐합 문제를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지역주민들이 통폐합 사실을 들어본 적 있는지,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통폐합이 2013년까지 유예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

<표12> 주민의 통폐합 사실 인식 정도와 관심도 비교

지역주민들의 통·폐합 사실 인식 정도

인식 정도	수산1리	신천리
들어본적 있다	78	67
들어본적 없다	22	33

들어본적 있다 들어본적 없다

■ 수산1리 ■ 신천리

지역주민들의 통·폐합 관심도

관심 정도	수산1리	신천리
매우 관심 있음	38	19
관심 있음	28	30
보통	14	31
관심 없음	14	15
매우 관심 없음	5	3

■ 수산1리 ■ 신천리

‘들어본적있다’는 비율이 수산1리는 78%, 신천리는 68.5%로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또한 그 관심도를 보면, 두 마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수산1리는 총 66%였으며, 신천리는 총 49.4%였다. 하지만 신천리의 경우 수산리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낮았으며, ‘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31.5%에 달했다. 즉 신천리보다는 수산리가 통폐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차이는 다음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13> 지역주민들의 통폐합 유예기간 인식 정도 비교	
---	--

70 60 50 40 30 20 10 0			
알고 있다		알고 있지 않다	
■ 수산1리		■ 신천리	

위 표는 지역주민들이 수산초와 풍천초의 통폐합이 2013년까지 유예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산리와 신천리의 주민들은 대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산1리의 경우 알고있다는 비율이 59.4%, 알고있지않다는 비율이 40.6%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주민들이 유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신천리의 경우 알고있다는 비율이 36.4%, 알고있지않다는 비율이 63.6%로, 수산1리와 달리 대부분의 주민들이 통폐합 유예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문제의식 부분은 수산1리와 신천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두 마을 모두 통폐합 문제를 들어본 적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수산리가 상대적으로 신천리보다 높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표 13>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통폐합 대상 학교가 위치한 두 마을의 인식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수산리와 신천리 주민 통합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3) 주민 단결
지역주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다음은 바로 주민단결의 문제이다. 만일 운동의 주체인 주민들이 분열된다면 지역주민운동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며 성공할 가능성도 낮다. 우선 지역주민운동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이 한 방향으로 모아져야 하는데, 통·폐합 문제의 경우 통폐합 찬성 그리고 반대의 두 가지 방향이 나올 수 있다. 다음 표는 지역주민들의 통폐합 찬반여부를 보여준다.

<표14> 지역주민들의 통·폐합 찬반여부 비교

찬반 여부	수산1리	신천리
매우 찬성	3	5
찬성	11	21
반대	46	46
매우 반대	40	27

■ 수산1리 ■ 신천리

수산리와 신천리 모두, 통폐합에 찬성하는 비율보다는 반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수산1리는 총 85.7%(반대한다 45.9%, 부정적인영향 39.8%)였으며, 신천리는 총 73.1%(매우부정적인영향 46.1%, 부정적인영향 27%)였다. 이처럼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기에, 지역의 여론이 통폐합 반대로 모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지역주민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표15> 지역주민들의 통·폐합 반대이유 비교

반대 이유	수산1리	신천리
등·하교 불편	18	45
지역 이미 지 약화	15	12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정적응	5	7
소속감 상실	54	30
기타	10	7

■ 수산1리 ■ 신천리

먼저, 수산1리의 경우 소속감 상실이 54.8%로 과반수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등하교 불편이 16.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신천리의 경우에는 등하교 불편이 45.3% 그리고 소속감 상실이 29.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두 마을 모두 등하교 불편과 소속감 상실이 주된 이유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산1리는 소속감 상실을, 신천리는 등하교 불편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러한 통폐합 반대 여론을 바탕으로, 다음 표는 지역주민들이 통폐합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표16> 지역주민들의 통폐합 관련 활동 참여 여부 비교

참여 여부	수산1리	신천리
참여하겠다	73	60
참여하지 않겠다	27	40

(7면으로 이어짐)

(7면으로 이어짐)

통폐합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을 보면, 수산1리는 73.5%, 신천리는 60.2%로 두 마을 모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 즉 지역 주민들이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대체로 통폐합 반대로 모아 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참여 의지 또한 높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단결 정도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단결은 바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제주연대’ 출범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직 요인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3. 조직 요인

“지금 이제 그 여러 단체들이 같이 하면서 연대가 꾸려져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 작은학교 살리기 연대 가 성산읍에서 지금 생긴거죠. 이거는 없다가 이제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는 절박함을 지역주민들이 일단 인식을 한 상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연대가 나온것이고, ”

“그런데 이제 2016년 까지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하면 도내의 17개 학교가 대상이예요. 그러면은 성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좌, 남원, 뽕 이렇게 도 전체적으로 가게 되다보니까, 어 그러면은 지금 몇 년 후에는 지금 그 마을도 직면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도 이제 어필하는 거죠. 이제 그 문제는 직면되니까, 우리 문제를 같이 공문화 해서 우리가 뜻을 모아 야 교육청에서 이걸 받아들인다. 정책에 수정을, 힘이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 입법 관계자, 남, 40세)

수산초와 풍천초의 통폐합과 관련된 대표적인 조직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제주연대(가칭, 이하 제주교육연대)’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수산초와 풍천초 문제 그리고 성산을 주민들로 한정된 조직이 아니다. 위에서도 언급하고 있드시로, 2012~2016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내 다른 소규모 학교들도 통폐합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또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성산읍 주민들과 함께 제주도 전체적인 교육 연대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직요인에서는 제주교육연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 조직은 2012년 11월 9일 출범식을 앞두고 있기에, 아직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이다. 바로 이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겠다.

1) 지도자
조직에는 항상 그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다. 지도자가 누구인지 혹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조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지도자들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직에서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주교육연대도 마찬가지이며, 다음 표는 제주교육연대의 임원(안)을 보여준다.

<표17> 제주교육연대의 임원
가) 고문 : 국회의원 나) 자문위원 : 교육계나 학계 원로 전문가 다) 공동대표 : 참여마을, 학교단위, 단체 참여대표 및 도의원 라) 상임대표 : 읍면지역(학교포함)단위 대표 10인, 도의원 1인 교육연대 2인, 사회단체 1인 - 15인 내외 마) 집행위원장 : 제주교육연대 추천인 바) 각 위원장 : 추후 선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주교육연대는 2012년 11월 9일 출범식을 앞두고 있기에, 아직 완전히 임원진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2) 조직 목표
제주교육연대를 조직한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공교육의 대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터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두 번째는 소규모 학교를 떠나는 학교에서 찾아오는 학교,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학교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정해진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 교육인프라 확충 운동, 예산확보 운동 그리고 지역, 마을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학교’ 프로젝트 등이 있다. 주요사업에 따른 세부사업은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18> 제주교육연대의 주요사업에 따른 세부사업 (예시)	
제도 개선 운동 교육인프라 확충 운동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 저지과 희망 만들기 토론회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작은 학교 통폐합 중단과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조례 운동	-작은 학교(농어촌 학교) 조례를 통한 학교 인프라 확충 -귀농귀촌 인규유입 시설 인프라 확충(예 임대주택)
예산확보 운동	‘아름다운 학교’ 프로젝트
-농어촌 학교 관련 예산확보 운동(제주도청, 제주도 교육청) -농어촌 학교 관련 아름다운 기부 운동	- ‘귀농귀촌’ 프로그램 확대 -1사 1학교 교류협력 사업 -지역사회와 연계한 ‘아름다운 학교’ 프로그램 기획 -아름다운 학교를 위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3) 조직의 규모와 형식성
제주교육연대는 현재 3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

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제주연대의 회칙> 또한 존 재한다.

4.자원 동원
1)재정 동원
지역주민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만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운동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란 어렵다. 또한 재정 동원에서는, 한순간의 일시적인 자금 확보보다는 계속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방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산읍의 지역주민운동에서는 제주교육연대의 재정 확보 방법이 중요시 되는데, 이는 제주교육연대의 회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19> 제주교육연대 회칙 제6조(회원의 의무)	
제주교육연대 회칙 중 제 6 조 (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내규의 준수 2. 공동대표회의와 상임대표회의의 결의사항 이행 3.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 ① 공동대표는 연 5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② 상임공동대표는 연 10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교육연대의 회원인 경우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대표는 연 5만원, 상임공동대표는 연 10만원의 회비로, 일반 회원들은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만일 일반회원에게도 분담금의 의무를 부과할 경우, 제주교육연대의 회원 규모에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동대표와 상임공동대표의 분담금만으로 이루어지는 제주교육연대의 재정이 원활한 자금 확보 통로가 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 지수이다.

2)전문가 동원
지역주민들의 통폐합 반대 운동에 정당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문가들이다. 즉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통폐합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와 논문 혹은 관련 저서 저술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직접 주민들을 계몽하는 데 나설 수도 있다. 이는 지역주민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기 부여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성산읍의 지역주민운동에서 전문가라 함은 제주교육연대에 속해있는 교육 관련 사회단체들을 들 수 있겠다. 이처럼 전문가집단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주민들을 지원한다면, 지역주민운동의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제주지역에 있는 많은 사회 단체들, 뽕 전교조 제주지부 부터 되는거고, 이제 어떠한 YWCA라든지, 각종 이제 뽕 공무원 노조도 있고, 그 외에 사회단체들 많이 있죠. 지금 40개 정도 사회단체들이 지지한다 는 거죠.” (교육 관련 입법 관계자, 남, 40세)

이외에도 마을 차원에서 직접 교육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여는 등 전문가를 동원하여 주민들을 계몽하고 지역주민운동을 펼쳐나가는 데 적극 적이었다.

“저희가 작은 학교 관련해서 외부에서 인사를 초빙 해가지고 혁신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강연회를 가졌어요. 저희 마을 자체내에서 성산읍에서 읍사무실에 가가지고 저희 마을에서 저희가 요청해가지고.”
“교육전문가이지쇼. 최근에 토치 초등학교 선생님 이 오셨는데, 거기 학교가 지금 그런 아이들이 행복한 작은 학교, 이런 학교를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하신분. 그 학교예요. 정말 강연도 정말 잘 하셨고, 거기 그때 자료 하면서 우리가 솔직하게 여러 가지 질문도 했었 어요. 질의문도만들어가지고, ”

(제주교육연대 관계자, 여, 42세)

3) 언론 동원 및 여론 형성
언론의 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하다. 언론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침투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정보화와 다문화 현상은 이러한 언론의 힘을 더욱 세계 만들어주고 있다. 특히 지역언론은 그 지역 사회, 지역 이슈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큰 영향력과 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언론을 어떻게 동원하느냐에 따라 지역주민운동의 성과가 갈릴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언론 중에서 지역신문에 주목하였다. 지역신문이란 서울 이외의 도(道) 권역에서 발행되어 그 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취재, 편집함으로써 그 지역발전을 꾀하고 지역주민과 상호작용을 통한 지역주민간의 응집력 및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신문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지역신문은 이처럼 주민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사회에서 대변자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록자이며, 주민활동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학교나 교회처럼 윤리적 힘이내 결속력으로써 지역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바지한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으로 JJ일보, JM일보, HL일보를 들 수 있는데,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 JJ일보를 분석해보았다. 다음 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산초와 풍천초의 통폐합과 관련된 기사들을 분석한 내용이다.

표20> 수산초와 풍천초의 통폐합과 관련된 기사 건수					
연도		2009	2010	2011	2012
건수 (개)	1월	0	0	0	1
	2월	2	0	0	0
	3월	1	0	1	2
	4월	2	2	0	1
	5월	3	1	0	5
	6월	0	0	1	4
	7월	0	0	0	4
	8월	1	0	0	8
	9월	2	1	3	5
	10월	0	0	2	2
	11월	1	0	1	0
	12월	0	2	5	0
	총계	12	6	13	32

2009년 12건, 2010년 6건, 2011년 13건, 2012년 32건으로, 통폐합과 관련하여 JJ일보에서 총 63건의 신문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2012년의 신문기사 개수가 가장 많은데, 이는 한영호 의원의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12~2016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계획 등 이번 해에 통폐합 관련 이슈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음 표는 63건의 신문기사를 의견기사와 스트레이트기사로 분류한 것을 보여준다.

<표21> 수산초와 풍천초의 통폐합과 관련된 기사 - 종류별 분류	
--------------------------------------	--

구분	건수(개)			
	2009	2010	2011	2012
의견 기사(해설)	0	0	4	11
스트레이트 기사(보도)	12	6	9	21
합계	12	6	13	32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통폐합과 관련된 기사는 모두 스트레이트기사였으나, 2011년에는 4건, 2012년에는 11건의 의견기사가 작성되었다. 다음으로는 63건의 신문기사를 영역 별로 구분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22> 수산초와 풍천초의 통폐합과 관련된 기사 - 세부 내용 분류	
--	--

세부내용	건수(개)
교육청 정책	20
통폐합	15
도립학교 설치 조례	13

심사평

논문의 구성 체재 잘 알면 질적수준 높일 수 있어

우선, 응모논문이 네 편밖에 없어 많이 아쉬웠다. 논문 수준 역시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과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의미있는 결과물을 발굴하기 위해 서로를 보듬어가며 땀 흘린 모습들이 그려져 흐뭇하게 느껴졌다. 아쉬운 점은 고민하고 땀 흘린 결과물들이 노력에 비해 잘 표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문심사나 논문지도 차원이 아니라, 한여름 청정 제주마을의 땀방 아래서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가면서 마을조사를 했던 경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번 백록학술상에 응모한 대부분의 논문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원석’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 가지고 있는 배움과 지식에 대한 열정을 계속 단련시켜 나가고 논문작성에 대한 세밀한 부분 몇 가지만 보완해 나간다면 향후 제 주학의 미래를 책임질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네 편의 응모논문 중 세 편은 논문은 학과 연례행사인 마을조사의 결과물을 논문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사회of 이슈나 현안문제에 대해 대상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병행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추출하고 그 결과물을 이론적 뼈대를 갖추어 재정리한 것이다. 이 세 편of 논문은 핵심물임이나 단순한 문헌고찰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함께 호흡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칭찬받아 마땅하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I 장 문제제기와 II장 논의의 배경으로(아마 자체적으로 조사와 결과를 작성의 틀을 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작성하

당선소감

소규모 학교 현황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
학교살리기 운동	3
주민설명회	2

이처럼 JJ일보의 경우, 수산초와 풍천초의 통폐합 문제를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다루었고, 최근에는 의견기사도 상대적으로 많이 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지역언론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하는 의도로 보인다. 2012년으로 올수록, 즉 지역주민운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언론이 통폐합 문제를 주목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V. 맺음말

근 제주도에서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본 연구는 이러한 통폐합에 따른 지역주민의 대응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지역주민운동 연구는 위험시설 혹은 혐오시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에, 이에 교육권 그리고 교육환경과 관련된 지역주민운동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표적인 사례로 성산읍의 수산초와 풍천초의 통폐합 문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표5>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성산읍의 지역주민운동을 분석,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기회 구조, 즉 정치적 환경은 성산읍의 지역주민운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장애가 되고 있다. 즉 한영호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교육위원들의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계속적인 통폐합 반대 의견 표출 등은 성산읍 주민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of 농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강경한 의지, 특히 2012~2016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계획을 통하여 2013년의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은 성산읍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회피하게 하는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환경이 꼭 성산읍의 지역주민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

둘째, 지역사회of 통합인대, 대체적으로 통합이 잘 되는 편이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 수산1리와 신천리의 차이가 존재했다. 우선 두 마을 모두 통폐합 사

실 인식 정도, 통폐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주민 여론이 통폐합 반대로 모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통폐합 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도 부정적으로 보았고, 통폐합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높은 편이다. 즉 지역주민들은 ‘우리의식’을 가지고, ‘통폐합 결사반대’라는 이름하에 단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산1리 주민들과 달리 신천리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으며, 통폐합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그 통합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조직요인의 분석을 위해 제주교육연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조직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아직 선부른 평가를 내릴 수 없다. 제주교육연대의 지도자, 즉 임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실제로 대표자회의 그리고 상임대표자회의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주요사업 또한 세부계획만 정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그 규모를 보면 현재 3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참여 단체를 늘려갈 예정이다. 만일 이러한 사회단체들이 분열 하지 않고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역주민운동of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넷째, 자원동원을 생각해보면, 제주교육연대의 재정이 원활한 자금 확보 통로가 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다양한 사회단체들과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이는 지역주민운동of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언론의 경우 초기에는 통폐합 문제를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으나, 지역주민운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하였다.

앞으로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역사회of 통합’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 기회 구조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교육청을 움직이고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제주교육연대와 언론도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통합과 합의of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통폐합 반대로 모아졌으므로, 더 많은 주민들이 통폐합 문제를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사회of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작 논문은 인터넷으로 제공됩니다. 제주대미디어(news.jejuu.ac.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는 영향-은평리 혼인지축제 분석」이라는 논문은 ‘혼인지’라는 전통문화유산이 축제의 소재로써 자원화되어 하나의 전통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혼인지축제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며, 지역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의미 있는 조사결과들을 포장하지 못하고 결론에서 “이러한 민간주도의 축제가 지속되어 지역사회of 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축제운영조직의 체계성, 구조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축제의 질적성장이 가능”이라는 평범한 문구만이 나타나고 아쉬웠다.

한편 「문화재 복원과 지역주민의 인식-은평리 한해장성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은 문화재복원사업의 주체들이 역할과 인식을 고찰한 연구인데, 조사대상자를 지역주민과 지역엘리트로 구분하는 것이 이채로웠지만 동의하기는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중국인관광객 유치방안 모색」연구는 아직 미숙하지만, 논문을 작성해본 경험이 거의 없을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논문형식을 갖춰나가는 의지가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더욱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심사위원> 김 동 윤(국어국문학과 교수·본지 주간) 진 관 훈(제주테크노파크 경영기획부장) 오 창 현(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장)

마지막으로 「중국인관광객 유치방안 모색」연구는 아직 미숙하지만, 논문을 작성해본 경험이 거의 없을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논문형식을 갖춰나가는 의지가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더욱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처럼 학부생 수준에서 작성한 논문이라 부족한 점은 많지만, 최대한 양질의 연구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직접 내가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물이라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으며, 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김 해 립(임반사회교육전공 3)

역량 중심의 교육이 미래 이끈다 / <6> 창업 교육에서 성공 창업까지 ‘원스톱’ 으로

창업교육·지원·보육 등 현장실무형으로 혁신

3단계 창업교육 프로그램 구현... 4개 동아리·15개 기업 창업

창업지원단, 지역자원 특화산업으로 경쟁력 있는 산학모델 제시

제주대는 지난 5월 중소기업청의 ‘특화형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돼 학내에 ‘생존 경쟁력을 갖춘 선도적인 창업기업 육성’을 창업슬로건으로 내걸고 창업지원단(단장 조경호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교수)을 설치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우수 예비창업자 발굴·양성부터 창업 준비, 창업 후 성장 단계까지 각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들 사업을 기반으로 우리대학은 3단계 창업교육프로그램인 ‘선도 창업 라이프 사이클’을 구현하고 있다.

유기적인 3단계 창업교육 시스템

제주대의 창업교육 기본 전략은 B.I.(Business Incubator) 3단계 전략이다. 1단계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설립된 창업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해 창업·기업가 마인드를 함양시키는 단계다. 창업교육센터에서는 학생창업교육은 물론 창업동아리활동 지원을 맡는다.

2단계는 창업지원단 교육과정을 통해 1단계를 거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예비기술창업자 지원과 창업교육, 동아리 지원활동을 통해 창업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창업보육센터 교육과정이다. 창업보육센터는 학생 창업자에게 창업컨설팅과 판로홍보 등을 제공하고 사무실과 주요 설비를 임대해준다. 오는 2월 제주시 삼도2동 옛 제주대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한 창업보육센터가 준공된다. 국비 15억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10억원, 교비로 출연하는 10억원 등 모두 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창업보육센터에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창업교육, 기업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해 49개의 기업이 오는 6월 입주한다. 창업보육센터는 또한 학생들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직접 우수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된다.

세 단계가 정착되면 이제껏 참여한 학생들은 우수·중견기업의 경영자로 성장하며 이들은 다시 창업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멘토가 된다. 제주대는 이러한 창업교육 선순환 구조를 ‘선도 창업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름 지어 제주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넓히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심축 역할을

할을 할 계획이다.

15개 기업 창업... 제주대 ‘창업명문’ 부상

“왜 남들이 만든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애타게 쫓느냐. 내가 회사를 창업하면 되는데...”

제주대 창업보육센터 203호실에는 지난해 3월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티는사람’이 있다. 사장 이근우씨와 이금재씨, 오준영씨가 센터에서 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수동식 공기호흡기의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장비 개발 업체를 창업, 일찌감치 직장을 마련했다. 고도화 된 디지털 장치를 통해 수동식 공기호흡기의 분간 산소 공급 횟수, 산소량, Co2 배출량 등의 적정량을 수치화 하는 디지털 장비를 내놓고 본격 영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티는 사람은 지난해 10월 전국 창업경진대회인 ‘2012 실전창업리그 Super Star V’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1000만원의 정부포상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지역에선 격인 실전창업리그에서 대상을 수상해 4개월간 제주대 창업지원단의 강철웅 교수(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심기범 교수(의학전문대학원 신경외과)의 창업교육을 거치면서 창업 아이템을 발전시켜 본선 대회에 출전해 이같은 성적을 올렸다.

지난해 제주대가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지금까지 창업한 기업수는 15개에 이른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회사당 2250만원에서 4480만원까지의 창업지원금을 주는 등 지난 한해에만 총 7억 6000만원을 투자했다. 제주대가 ‘창업 명가’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대학 측이 창업지원단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동아리 ‘실속 있네’... 콘텐츠 공모전에서 두각

대학 창업동아리도 늘고 있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창업동아리를 만들어 창업의 전 과정을 경험하는 등 예비 창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 창업아이템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이 주를 이뤘지만, 휴양형 관광콘텐츠, 천연색소를 이용한 아이라이나 개발, 전복치패 선별 장치 개발, 스과 제품 생산 등 지역자원을 특화산업으로 이끈 산학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활동도 두드러져 전국대회에서 잇따른 성과를 내고 있다. 창업동아리 ‘JUST’는 지난 10월 ‘2012학생창업챌린지심경진대회’



제주대학교 LINCS사업단(단장 이상백)과 창업교육센터(단장 강철웅), 창업지원단(단장 조경호)은 공동으로 지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012 BLUE 창업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전국대회에서 최종 TOP5에 선정돼 교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창업동아리 ‘그린세미오’는 제주원료 컨셉 화장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주산팔나무와 개민들레를 활용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이를 발판으로 ‘2012산학협력EXPO’에서 열린 창업발표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전복치패 선별장치 개발 및 임대사업’ 계획서로 창업동아리 ‘씨러브’는 ‘2012 실전창업리그 Super Star V’ 지역예선에서 금상을 받는 등 사업아이템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았다.

조경호 창업지원단장은 “극심한 취업난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창업”이라며 “학생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가정신과 도전의식을 일깨우는 창업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창업 활성화 이끄는 ‘창업지원단’

창업동아리나 예비창업자들의 우수 창업아이템을 뽑아 청년 창업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곳이 바로 ‘창업지원단’이다.

우선 제주대 창업지원단은 지식 기반의 기업가정신 대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창업강좌 및 연계 전공과목을 마련, 기업가 마인드 제고를 위해 필요한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 창업 학점을 부여하고 창업활동에 참여하는 교수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 구성원 전체가 창업에 참여 및 협조를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또 원스톱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 기업이 정신 교육프로그램, 홍보 서포터스·기자단 등을 운영하며 대학 내 창업교육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창업지원단은 지난해 4월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심사를 통해 선발한 11개의 창업팀과 7개팀의 창업동아리, ‘창업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4개의 창업팀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동아리와 창업인 회사들은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세무,

회계, 특허 관련 각계 전문가가 진행하는 워크숍은 물론 최고경영자(CEO) 특강과 제주도내 여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취업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창업까지 적극 지원하는 것도 큰 특징이다. 제주대학교는 창업지원단과 함께 창업교육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교육센터는 재학생에게 단계별 창업교육을 실시한다. 기업가정신을 길러줘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창업과정을 창업전단계, 창업단계, 창업후단계의 3단계로 구분해 과정별로 실질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벤처창업실무 △창업성공스토리 등의 정규교과목을 개설하고 △창업아카데미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창업캠프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컨설팅과 멘토링, 기술지도는 물론이고 제품개발과 재료구입도 돕고 있다.

창업지원단은 대학생과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를 열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열린 이 행사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5명의 CEO와 함께하는 토크쇼 및 창업동아리 홍보 부스 등으로 꾸며졌다. 지난봄에 개최한 1회와 달리 김윤경씨(썬카본 대표)의 사회로 지상기씨(썬바이로봇 대표), 이인택씨(썬루바테크 대표,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차희찬씨(iBrush 대표), 서지선씨(썬제이엔터프라이즈 대표) 등 창업에 성공한 청년 창업자들을 초청하여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조경호(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창업지원단장은 “창업 강좌, 창업동아리, 창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 내 유망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발굴하는 등 창업자 양성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구도심에 있고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완공되면 더 많은 청년창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어 제주도 청년창업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시론

새 정부에 바란다

2012년 뜨거웠던 대선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3%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차기 대통령은 상대편 후보를 지지했던 절반가량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법적 정당성을 내세워 나머지 절반의 의사를 무시하고 입법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 파행과 갈등은 차기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우선 선거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표출된 ‘정치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의 한국 정치는 수요자(도민)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정당이나 정치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2개의 거대 정당이 정치와 권력을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정치인들이나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경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대통령이나 자기 당의 지도자에게 출세를 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 역시 신뢰 받는 정치인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차차파 유권자들은 양대 정당이 결정한 정치인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만 한다. 잘못되면 집권당이 잘못돼도 제1야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치를 2개의 정당이 독과점하고 있어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소홀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길러내는 데 역량을 쏟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의 독과점 체제는 의회에 새로운 정당이나 정치인의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 때문이다.

비례대표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새로운 의견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과 새로운 집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의회에 진출하고 지역의 거대 정당, 지역의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새로운 정당과 정치인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 정당이 경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기 혁신을 추진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정치 효용감을 높이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로부터 소외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강화한다.

따라서 ‘정치 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국회의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최현
사회학과 교수

이것은 또한 지방 의회와 지방 정치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의 두 번째 과제는 경제 민주화,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확인된 것처럼 지난 10년간 심화되어 온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빈부 및 서울·지방 격차 확대)는 이제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 빈곤층의 어려움과 부유층의 권력 남용, 가족 붕괴, 자살률의 증가는 한국 사회가 양극화로부터 겪는 고통을 대변해주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은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경제 민주화와 사회복지 확대라는 국민적 요구로 모아졌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과 관련해서 지난 10년은 시장에 고등 교육을 내맡겨 대학 교육을 기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온 과정이었다. 대학생들은 알바에 쫓겨 학업을 등한시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적 시민을 양성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생산성이라는 시장의 논리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인류는 시장의 논리에 반해서 아동 노동 금지법을 제정했다. 마찬가지로 지적 시민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대학은 단순히 시장의 논리에 따라 수업료를 정하고 취업을에 따라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학자뿐만 아니라 대학이 배출한 다양한 민주적 시민을 시장 논리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논리를 활용해 사립대를 선도해야 한다. 즉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육성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국립대의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사립대의 개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다
마침내 드넓은 바다에 도달하듯
너그럽게 세상을 품는 물처럼
더 넓은 가슴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

695-9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교래리 산70)
Tel. 064-780-3400 www.jpdc.co.kr